



달라진 연말정산 稅테크 준비 이렇게

대부업 상호에 '대부' 표기

숨가쁘게 달려온 2007년도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매년 그렇듯이 이맘때가 되면 급여생활자들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연말정산을 잘 해서 세금 환급액을 높이는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생활자가 1년간 납입한 세금을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으면 차액을 환급해주고, 그보다 적게 냈으면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자녀수 2인 이상 50만원·3인이상 추가 1인당 100만원 공제
교육비 태권도·수영교습 등 체육시설도 서류 갖추면 혜택
의료비 미용·성형·시력교정 비용은 내년 11월까지 적용
카드비 체크카드 공제율 20%로 상향... 신용카드보다 유리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공제를 통해 이를 보완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게 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

가 나기도 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올해 연말정산시 눈에 띄는 것은 작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즉,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5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며,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3자녀 가정인 경우 150만원을 공제받게 될 것이므로 과표가 1천만원~4천만

원 사이일 경우 약 3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 지급한 수업료 중 대상이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로 한정돼 있었고 교육과정 인정 요건도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으로 까다로웠으나, 올해부터는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

도 대상에 들어가며 교습 요건도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으로 낮아져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면 1인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범위도 확대됐다. 이는 성형외과, 한의원 등의 소득 과약을 위해 일몰기간을 2년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미용·성형·보신·시력교정 등에 들어갔던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내년 11월까지의 모든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므로 금액이 100~200만원 정도는 넘어야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변경됐다. 작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연금 15% 초과사용액의 15%를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신용카드를 공제율을 유지하되 체크카드는 20%로 상향조정됐으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단, 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으므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공제받겠다는 생각보다는 보너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연금여가 2천500만원이고 과표가 900만원인 사람의 연 카드 사용액이 1천500만원일 경우 최종적으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6만원에 불과하다.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무등록 업자 年 이자 30% 넘게 받으면 처벌

앞으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등의 문자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또 대부 계약시 계약서에 대출금액과 이자율 등 중요사항은 이용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와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만든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8일 열린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 이용자에게 직접 돈을 대부하는 사람은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대부업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중개업을 별도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넘겨받아 추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도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무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정부 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여전

중앙행정기관 9곳서 446명 주민번호 확인

정부가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노출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중앙 행정기관의 사이트에 여전히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류근찬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중앙행정기관 41개 중 22%인 9개 기관에서 144개 파일, 44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지난 4일부터 2주간 인터넷보안전문가와 '검색어 조합'을 통해 인터넷 검색에 의해 노출되는 개인정보 현황을 파악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행정기관별로는 노동부(67개 파일, 67명), 행정자치부(34개 파일, 78명), 중소기업청(34개 파일, 34명), 식품의약품안전청(3개 파일, 98명), 국가보훈처(2개 파일, 7명) 등이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집주소 등이 담겨 있는 내용의 파일이 다수 인터넷에서 검색됐다. (연합뉴스)

"서울 금융 중심지 되려면 규제 개선을"

SCB 회장 세계지식포럼서 피터 샌즈 스탠다드

SCB 회장 세계지식포럼서 피터 샌즈 스탠다드 차터드은행(SCB) 회장은 18일 "서울이 국제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적 환경과 규제 환경을 더 많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샌즈 회장은 이날 서울 위귀호텔에서 열린 '2007 세계지식포럼' 특별 강연에서 "아시아에 싱가포르와 홍콩 외에도 3~5개의 국제적 금융 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며 "내재적인 가치를 잘 활용하고 인재를 보유하고 있고 효과적인 법적, 규제 환경을 가진 곳이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이 국제적 금융 중심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 "올바른 접근 방향을 갖고 있다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독특한 위치를 활용해 독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즈 회장은 한국 정부의 금융허브 태스크포스 구성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규제 환경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결재, 승인 절차가 층층이 쌓여있다"면서 금융 중심지의 조건으로 ▲해외은행과 국내은행간 공정한 시장 조성 ▲투명한 입법 과정 ▲리스크 기반의 정책 입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규제 환경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샌즈 회장은 또 "한국에도 우수한 인재가 많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적다"면서 인재를 훈련할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친화적인 자녀교육 환경 등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유가 급등속 상품수지 흑자 폭 급증

원유가격이 사상최고치를 나타내고 곡물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원화강세로 수출건도 나빠지고 있지만 상품수지 흑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상품수지는 오히려 작년보다 흑자폭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서비스수지 적자를 충분히 상쇄하고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이어가는데 효자노릇을 할 전망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4년 376억달러였던 상품수지 흑자는 2005년 327억달러, 2006년 292억달러 등으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들어서는 수출입 여건이 예년에 비해 더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는 증가세를 반전돼 2005년 수준에 가까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한은은 '2007년 경제전망'을 내놓으면서 올해 상품수지 흑자를 300억달러로 예상했으나 7월에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이 수치를 315억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실제로 1-8월 상품수지 흑자는 190억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21%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상품수지 흑자폭은 추정 전망한 315억달러를 웃돌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한은의 예상대로라면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경상수지 부문에서 올해 295억달러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상품수지의 호조로 전체 경상수지는 20억달러의 흑자가 유지된다. (연합뉴스)

잡은 설계변경 때문에...

건교부·국토관리청 도로공사비 1조 5,000억 낭비

건설교통부 산하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2004년 이후 시행한 도로공사에서 506차례에 걸친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액이 거의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건교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2004년 이후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이 시행한 5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8개 노선에서 506차례에 걸쳐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처럼 잦은 설계 변경에 따라 도로 공사비는 당초 17조1천879억

원에서 18조6천840억원으로 무려 1조4천960억원이나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지방 국토관리청별 설계 변경 횟수 및 공사비 증가액은 ▲부산청 166회 3천213억원 ▲익산청 108회 4천333억원 ▲원주청 93회 2천976억원 ▲대전청 92회 2천528억원 ▲서울청 47회 1천907억원 등이다. 정 의원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이 장기간의 공기로 인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경이라고 하지만 이는 관계에 불과하다"면서 "실제에 앞서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재검토가 수반되었다면 설계변경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로봇의 모든 것 '로보월드 2007'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로보월드 2007 박람회' 행사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인명구조용 카메라와 장비를 갖춘 인명구조용 로봇을 관람하고 있다. 박람회는 21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연합뉴스)

韓銀 적자 때문에...

3년간 정부세입 납부액 전무 누적이자 2조870억원 달해

한국은행이 2004년 이후 작년까지 3년간 이익잉여금을 정부세입으로 전혀 납부하지 않았지만 기존 세입액에 대한 이자는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국정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작년까지 3년 동안 한은은 적자 때문에 정부세입 납부가 전무했지만 정부세입 납부 관련 누적이자자는 2조87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한은이 이익잉여금을 정부세입으로 납부하기 시작한 1996년부터 흑자 기조가 유지된 2003년까지 정부세입액 13조7천400억원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통안증권에 붙는 이자가 매년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은은 수지흑자가 발생하더라도 원화 수익이 없기 때문에 통화 발행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납부한 뒤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늘어난 통화를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세입액에 대한 이자가 불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작년까지 10년간 누적이자자는 총 4조3천260억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혈세 평평 쓰는 공기업

해외여행 준비금 180만원 하루 체재비도 55만원 써

그동안 공기업들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영진에게 최고 2천달러(180만원)의 준비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금은 여행시에 사용할 가방·옷 등 필요용품을 준비하는데 사용한 돈으로, 해외여행 준비비용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웠던 시절에 지급이 시작돼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 공기업 임원들은 해외 여행시에 주로 1등석을 탔고 하루 체재비(숙박·식비 등)도 기관장의 경우 많게는 600달러(55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에 산처는 18일 공기업들의

여행 준비금, 체재비 등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대한 조정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기업들의 여행 준비금은 1950년~1960년대 해외여행이 어려웠던 시절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해외 여행을 떠나려면 옷도 사고 가방도 구입해야 했으며 비자발급 등의 수수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준비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했다는 것이 기획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는 해외여행이 빈번해졌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데 별도의 준비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준비금이 필요하더라도 공기업의 급여가 감당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공기업들은 아직까지 여행 준비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처는 이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개미들 "사자" 코스피 2000선 회복

외국인은 2,454억 순매도... 닷새째 팔자 행진
보험株 실적개선·M&A 기대감 10.63% 급등

이를 연속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코스피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 2,000선을 회복했다. 18일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1.15포인트(1.07%) 오른 2,005.09에 마감됐다. 코스닥지수도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전날보다 11.98포인트(1.54%) 오른 792.20으로 마감됐다. 이날 지수는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상승세가 진정되고 경제전망에 대한 우려가 뒤섞이면서 혼조를 보인 가운데 5.66포인트(0.29%) 오른 1,989.60에 출발한 뒤 오전 한 때 하락 반전하기도 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동

반 '사자'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지켰다. 외국인은 이날 2천454억여원을 처분 순매도하며 닷새째 순매도 행진을 이어간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1천88억원, 93억여원을 순매수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 우위로 3천557억원의 순매도였다. 의료정밀(-2.85%), 운수항공(-0.95%), 기계(-0.63%), 통신업(-0.61%)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이 올랐다. 보험업종은 실적 개선과 인수합병

(M&A) 기대감이 맞물리며 10.63% 급등했다. 삼성화재(8.41%)와 삼성화재 우선주(6.74%), 한화손해보험(1.12%)을 제외하고 전 종목이 10%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흥국생명화재와 코리아안리, 대한화재, LG손해보험, 그린화재보험, 현대해상, 제일화재, 메리츠화재 등 대형, 중소형 보험주가 무더기로 상한가에 올랐다. 보험업종에 이어 증권(3.19%), 섬유·의복(3.17%), 화학(2.47%), 서비스(2.47%), 건설업(2.16%), 금융업(2.0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POSCO가 0.16% 오르며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은 보합세였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Table with 6 columns: Company Name, Department, Position, Salary, Start Date, Contact Info. Includes companies like HwaIn, S-Trip, Metra, etc.